

공동개발 구체 논의

한·중 중형항공기 개발에
산업협력위 항공기 분과 2
차회의 서울에서 개최
3월말, 구체내용 협의

중형항공기 공동개발을 위한
한·중간 제2차 공식회담이 4월
말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차회의는 작년 10월 9일 중국
북경에서 개최되었는데 동회의에
서 100석급 항공기에 대한 상호
협력원칙과 협력방식, 협력파트
너, 합작지분율 등에 대한 합의
가 이루어졌다. <관련기사 항공
우주 '94년 11월호 2Page>

이번 회의에서는 그동안 양국
업체간에 실시된 공동타당성검토
결과를 보고받고 최종 조립장 위
치와 물량분담 및 설계개발 작업
분담 내용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
을 협의결정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상반기내에 제3국 협
력선을 선정하고 금년내에 3국간
공동개발 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항공부문 270억원
지원규모 확정**

통상산업부는 2월 23일 제1차

공업기반기술개발전문위원회를
열고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 1
차년도인 올해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에 1천 9백18억원을 지원키
로 하고 사업별 지원금액을 확정
했는데 항공우주부문에 270억원
을 지원하기로 확정했다.

통산부가 이날 확정한 사업별
지원금액은 중소기업의 공통애로
기술개발사업에 5백30억원, 중기
저점기술개발사업에 4백60억원,
선도기술개발사업에 3백77억원,
항공우주개발사업에 2백70억원,
부품연구소 지원에 1백억원 등이
다. 또 산업디자인 포장기술 지
원에 55억원, 지방 산.학.연 컨소
시엄 지원에 50억원을 지원하고
유망선진기술 등 기타 사업에 39
억원을 대주기로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2000년대
산업기술혁신을 도모할 수 있는
산업기술발전 5개년 계획을 오는
5월말까지 확정키로 하고 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소요자금 2조
2천억원 가운데 정부와 민간이
각각 1조1천억원씩을 조달키로
했다.

정부 지원자금 1조1천억원은
재정경제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
공업기반기술개발 사업 예산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6,520억원 배정

중소기업기반조성에
투자, 기술개발등 지원
신용보증도 출연 증액

올해 중소기업기반조성자금으
로 총 6,520억원이 지원된다. 중소
기업기반조성자금이란 종전 한국
은행의 재할지원에 의해 기업들
에게 지원되던 자금을 政策金融
촉수방침에 따라 지난해 부터 財
政지원으로 전환한 것이다.

정부는 또 지난 2월 9일 마련
된 '중소기업지원종합대책'에 따
라 중소기업은행에 500억원, 신용
보증기관에 1,230억원을 최근 출
연했다.

이 자금은 수출(수입대체수
재·부품포함)산업설비투자, 기
술개발(신기술·도입기술의 기업
화·제품화 포함), 환경보전 시
설투자, 중소기업생산 시설재 구
매등 네가지 용도를 대상으로 지
원된다.

중企기반조성자금은 정부예산
3,620억원, 은행의 자체 조달자금
3,260억원으로 책정, 지원되는데
융자취급기관은 △ 시중은행 △
지방은행 △ 중소기업은행 △ 국
민은행 등이다.

융자한도는 소요자금의 100%

범위내 이며 최장 10년(유자기간의 3분의 1을 거치기간 인정)이며 금리는 연 8.5%다.

한편 정부는 중소기업의 상업어음할인을 원활히 해주기 위해 중소기업은행에 500억원을 지원했다.

재정원 관계자는 올해 중소기업은행 지원용으로 1천억원의 예산이 편성돼 있다면서 나머지 500억원도 오는 4월에 지원해 중소기업의 어음할인에 쓰이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확대를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870억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360억원 등 총 1,230억원을 출연했다.

정부는 올해 신용보증기관 출연을 위해 책정해 놓은 4,300억원(民資사업참여용 200억원 포함) 중 아직 출연되지 않은 3,700억원을 가급적 조기에 출연할 방침이다. 정부의 이번 출연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의 신용보증 비율은 작년말 기본재산의 14배에서 이달말 12.7배수준으로 낮아지게 됐다. 또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경우도 보증배율이 8.9배에서 8.1배로 낮아지게 됐는데 현행 법정보증 지원도는 기본재산의 15배로 돼 있다.

사업별 규모확정 공업발전기금 용자 고시

통상산업부는 올해 공업발전기금의 사업별 용자규모를 확정, 2월 13일 발표했다.

통산부가 확정 고시한 '96년도 공업발전기금 운용 및 관리요령에 따르면 올해 공발기금은 2천6백15억원으로 이 가운데 시제품 개발사업에 1천2백억원, 첨단산업기술개발사업에 5백45억원, 생산성 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7백억원, 염색공단의 폐수처리시설 확충사업에 1백70억원이 각각 지원된다.

공발기금 용자대상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으나 섬유소재개발을 제외한 시제품 개발의 경우에 한해 대기업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으며 용자기간은 5~8년, 금리는 6.5~7%이다.

통산부는 올해 지원항목에서 합리화사업에 대한 지원을 제외하는 대신 생산성향상 및 고부가가치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신설했다.

운용규정 제정고시 통상산업부 공업발전기금

통상산업부는 공업발전기금업무운영규정을 제정고시했다.

2월 13일 고시된 동규정에 따

르면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운영심의회를 설치하여 용자사업자 선정 및 기금지원액 등을 결정하게 했다.

운영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8명이상으로 구성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기업, 대학, 연구소등의 전문가중에서 위촉하게 되어 있다.

용자사업자의 선정기준은 △ 사업의 중요성 △ 사업의 목표, 내용 및 수행방법 △ 사업수행능력의 적정성 △ 사업성과의 사업화 가능성 △ 설치시설의 중요도 △ 생산기여도 등을 고려하되 기업부설연구소가 설치된 기업이나 연구투자비율이 총매출액의 일정을 이상인 기업이 신청한 과제에 대해서는 우대하도록 되어 있다.

수요조사 일제 실시 기술개발조성 사업위해 96~2천년 5개년 대상으로

통상산업부는 2월 20일부터 4월 15일까지 전국의 공과대학(전문대포함), 국공립연구기관, 출연연구소, 사업자단체, 협회, 조합 등을 대상으로 96~2천년(5개년) 동안 추진할 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한다.

기술기반조성사업은 기술발전의 밑바탕을 이루는 기술인력·

기술정보·연구시설 등과 같은 기술기반(인프라) 조성에 정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원칙적으로 민간과 정부가 공동으로 추진하게 된다.

통산부는 이번 수요조사를 통해 도출되는 기술기반조성사업 수요조사 결과를 토대로 기술하부구조 확충 5개년 계획을 수립, 96~2천년 민관 공동으로 추진해야 할 지원대상분야를 선정하게 된다.

올해 추진될 기술기반조성사업은 총 12개 사업으로 886억원(정부 95억원, 민간 791억원)이 투자될 계획으로 있는데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주문형반도체 설계기술인력 양성 △ 자동차부품 기술인력 양성 및 훈련 △ 산업 재산권 진단 및 보호체제 구축 △ 정보산업 표준화 △ 산·학협동연구단지 기반구축 △ APEC 테크노마트

대만과 항공회담

3월 15일 타이베이서

타결되면 6월말 운항재개

한국과 대만간의 항공운항 재개를 위한 회담이 지난 92년 단교이후 처음으로 오는 3월 15일 열릴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번 회담이 타결될

경우, 오는 6월말에는 양국간 항공운항이 거의 3년만에 정식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2월 25일 대한무역진흥공사 타이베이무역관 보고에 따르면 대만 민항국의 張國政부국장은 다음달 중순께 타이베이에서 양국간 항공운항 복항을 위한 회담을 개최키로 했다고 밝혔다.

양국은 지난해말 복항과 관련한 접촉을 가질 예정이었으나 취소되었다.

한편 이번 회담에 앞서 한국의 아시아나항공 尹正鎭 부사장이 28일부터 3월 2일까지 대만을 방문, 예비접촉을 가진바 있다.

양국간의 단교 이전에는 국내 항공사중 대한항공만이 서울~대만간을 주 10회 취항했었다.

醴泉 ~ 濟州 노선 운항 인동상의서 개설 건의

安東상의는 2월 22일 醴泉~濟州간의 새 항공 노선을 개설해줄 것을 중앙의 관계당국에 건의했다.

상의에 따르면 현재 醴泉공항은 醴泉~서울간 노선만 개설됐을 뿐 醴泉~濟州간 노선은 개설이 안돼 이 지역 주민들이 제주도를 가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들어 신희부부를 비

롯, 관광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데도 濟州노선이 개설 안돼 승객들은 大邱나 金海공항까지 가야하는 등 시간과 경제적 손실을 많이 입고 있다.

상의 관계자는 "지난달 대한항공이 濟州노선에 대한 운항계획서를 관계기관에 제출했으나 특별한 이유없이 반려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히고 "세계화, 지방화에 맞춘 관광산업 활성화와 북부지역 각 학교의 濟州행 수학여행 등으로 지역발전을 앞당길 수 있도록 노선취항을 빠른 시일 내에 허용해 줘야한다"고 주장했다.

蔚山공항 이전 추진

경주와 연계 국제공항으로

蔚山시는 장기적으로 蔚山공항을 서외곽이나 慶州시와 연계해 국제 규모의 공항으로 확장 이전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울산시 당국에 따르면 현재 中구 松亭동 소재 蔚山공항은 시·군통합으로 도시 중심부에 위치하는데 오는 96년까지 활주로 등 시설확장공사가 끝난다 해도 2000년 이후의 광역도시 규모로는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올해 통합시 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蔚山공항

을 국제공항으로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항이전을 전제로 한 시설 지구지정 등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시는 蔚山공항 이전지로 慶北 慶州市와 蔚山시의 중간지점이나 동해안을 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시 관계자가 “바다매립 보다는 慶州와 공동으로 개발할 경우 고속전철과 연계가 이뤄지는데다 慶北 동해안인 浦項권까지 이용이 가능해 정부의 지원이 용이할 것으로 보고 慶州市와 연계한 국제공항 건설방안을 우선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동해안 국제공항건설에 襄陽학포리로 결정 9월 설계 착수 내년 부지매입

江原도 영동지역의 국제공항 신설 부지로 양양군 손양면 학포리와 동호리, 도화리 일대 1백60여만㎡가 최종 결정됐다.

束草시 당국은 지난 2월 22일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학포리 일대가 공항건설 부지로 최종 결정됐다고 2월 25일 발표했다. 건설교통부는 오는 9월 실시설계에 착수, 내년까지 부지매입 완료, 99년까지 신공항 건설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신설되는 영동국제공항은 활주로 1개(2,100m×45m)를 비롯, 대형 여객기 4대가 동시에 기할 수 있는 계류장(3만2,600㎡), 여객터미널(1만6천㎡), 주차장 등을 갖추게 된다.

계기착륙 가능 광주, 강릉공항 시설완료

광주공항과 강릉공항에 계기착륙시설이 완비되었다.

이로서 그동안 계기착륙 시설이 없어 시계비행에 의존해야했던 두 공항의 착륙조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강릉공항은 지난 12월 1일 운용을 개시했고 광주공항은 3월 10일부터 계기착륙시설의 운용을 개시했다.

항공운항 안전기술기준 제시 건설교통부 기준 개정

건설교통부는 2월 13일 항공기 항행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상의 기준을 개정 고시했다.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주로 항공기 발동기에 대한 기술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 일반

- 1 적 용
- 2 일 반
- 3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시서
- 4 발동기 장착 및 작동을 위한 지시 교범
- 5 발동기 등급 및 작동 제한 사항
- 6 발동기 출력과 추력 등급 선정

제2장 설계와 구성 : 일반

- 1 적 용
- 2 [보 유]
- 3 시동-정지 주기 용력(저주기 퍼트)
- 4 재 료
- 5 화재방지
- 6 내구성
- 7 발동기 냉각

- 8 발동기 마운팅 연결장치와 구조
- 9 보기류 연결장치
- 10 터빈, 압축기, 팬, 터보과급기 로터
- 11 계기 연결

제3장 설계와 구성 : 피스톤 발동기

- 1 적 용
- 2 진 동
- 3 연료와 유입시스템
- 4 점화시스템
- 5 윤활시스템

제4장 블록 시험 : 피스톤 발동기

- 1 적 용
- 2 일 반
- 3 진동시험
- 4 보정시험
- 5 폭발시험
- 6 내구시험
- 7 작동시험
- 8 발동기 구성품 시험
- 9 분해 검사
- 10 블록시험의 일반 수형

제5장 설계와 구성 : 터빈 발동기

- 1 적 용
- 2 용력해석
- 3 진 동
- 4 씨지 및 실속 특성
- 5 블레이드 공기시스템
- 6 연료시스템
- 7 유입시스템 결빙
- 8 점화시스템
- 9 윤활시스템
- 10 유압작동시스템
- 11 출력 또는 추력 응답
- 12 안전 해석
- 13 외부 물체 유입
- 14 연료 연소추력 증가기구

제6장 블록 시험 : 터빈 발동기

- 1 적 용
 - 2 일 반
 - 3 진동시험
 - 4 보정시험
 - 5 내구시험
 - 6 발동기 초과온도 시험
 - 7 작동시험
 - 8 초기 정비검사
 - 9 발동기 구성품 시험
 - 10 윈드 밀릴 시험
 - 11 분해 검사
 - 12 블레이드 내포 및 로터 불균형 시험
 - 13 발동기-프로펠러 시스템 시험
 - 14 보조 동력장치 모드에서의 발동기 시험
 - 15 역추력기
 - 16 블록시험의 일반 수형
- 부록 A — 감항성 유지를 위한 지시서